

탈석탄 시대 '브리짓 연료'...수소산업 등 탄소중립 허브 조성

여수 묘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전남도와 (주)한양이 묘도에 여수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추진하게 된 것은 탄소 중립을 위한 '브리짓 연료'로서의 LNG의 중요성과 대형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묘도의 잠재력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2050년 완전한 탄소 중립을 위해 향후 30년간 '탈석탄 재생에너지 시대'를 이어주는 브리짓 연료인 LNG는 기존 화석연료의 단점이었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묘도의 지정학적 이점은 동북아 허브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기에 충분했다. 중국·일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국내에서는 부산에 이어 한국의 항만 물동량 2위를 자랑하는 여수광양항에 위치하고 있다. 또 인근에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여수 산업단지가 있어 에너지 수요가 풍부하다. (주)한양은 항로,

1단계 2025년까지 1조2000억 투입 묘도-여수산단 해상파이프랙 구축 복합에너지·미래신소재산업 등 민간 기업·투자 적극 유치 예정

항만 조건이 우수하고 부지 확장성이 뛰어난 묘도에 해상파이프랙을 구축, 여수국가산단과 직접 연결하는 인프라로 활용해 묘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국내 발전 공기업, 민간발전사, 민간기업 등은 연료-원료 단가 경쟁력을 갖춘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직수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내에서 LNG 터미널의 입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직수입을 바라는 소규모 기업들의 수요를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LNG를 구매할 수 있는 순수 상업용 터미널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2025년까지 우선 1조2000억원 투입해 1단계 조성= (주)한양은 묘도 공유수면 약 310만㎡를 매립해 여수 LNG 터미널 조성에 나섰다. 오는 2025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설비, 부두시설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단계 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완료했으며, 수요처 추가 확보를 통해 LNG 저장탱크 4기를 더 건설하는 2단계 사업(총 8기), 해외수요를 확보해 총 12기의 LNG 저장탱크를 건설, 동북아시아 최대 LNG 허브 터미널을 완성할 방침이다.

현재 여수 LNG 터미널 공사는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저장탱크 1호기 기초 공사를 위한 파일 항타 작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저

장탱크 2호기 파일 항타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다. 2022년 1월에는 터미널 건설을 수행할 업체 선정도 마무리한다.

◇2·3단계와 함께 신산업 유치·수소산업 등 탄소중립 거점=여수 LNG 터미널 1단계 사업 완료 후에는 LNG 병커링, 트레이딩, LNG 냉열이용 물류창고 및 데이터센터 유치 등 LNG 연관산업과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항후 묘도 준설토 매립지의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신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묘도가 위치한 여수광양만권은 석유화학, 철강산업 집적지로 전남 산단 생산액의 89%, 입주기업의 24%, 고용인원의 57.7%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다. 한양은 묘도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부지를 분양하고 묘도에서 여수 산단에 이르는 해상파이프랙 및 가스배관 연결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수 산단의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합에너지물류 및 발

전, 재생에너지생산, 미래신소재산업 등의 시설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각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묘도에 수소와 암모니아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허브를 조성한다. 묘도가 위치한 여수-광양 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생수소 생산이 많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수소(연간 약 100만t) 수입·생산·저장·수출·공급이 가능한 터미널과 암모니아 수입·저장·공급 터미널을 묘도에 구축하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고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묘도에 그린에너지 허브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수소 연료전지, 수소 혼소 발전소, 수소 충전소 등까지 영역을 확장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터라게 자전거 라이딩하는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서구 상무역 만남의 장소에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2022 광주행동계획 발표회'에 참석한 뒤 자전거를 타고 녹색교통 자전거 타기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신해양·친환경 수도' 비전 국정과제 반영 결의

김영록 지사 '미래전략 보고회'

전남도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미래 비전으로 선포하고, 도내 각계각층과 함께 이를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에서 '옴므전남 미래전략 도민 보고회'를 열어 옴므전남 미래전략을 도민과 함께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가 발표한 '옴므전남 미래전략'은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의 비전 아래 8대 추진전략, 69개 과제(핵심과제 34개, 지역발전과제 26개, 제도개선 건의 9개) 82조 원 규모로 구성됐다. 지난 9월 발표한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다듬고 보완해 완성했다.

8대 추진전략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과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에 역량을 결집한다. 또 ▲청정 전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개최와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첨단전략산업 고도화

를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K-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세계적 관광문화 중심지 구축을 위한 영호남 동서내륙 광역관광 벨트화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미래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첨단농산업 융복합 단지와 K-김치 & 밀키트산업 육성에도 힘을 모은다. ▲스마트 SOC 구축을 위한 서해안 고속철도와 서울-제주 고속철도 등 친환경권 국가철도망 완성 및 광양항 스마트 해양물류 인프라 구축 ▲남해안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해양·친환경 수도 건설,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도 포함됐다.

전남도는 '국립 보성강 구석기 문화 박물관' 건립, '농생명 치유·힐링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등 지역발전과제 26건과 '인구감소지역 특례 지원제도 마련', '지방하천의 국가지원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등 9건의 제도개선과제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독경제 활성화로 전남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전남도-중기유통센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협약

전남도가 지역 구독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농축수산물 등의 판로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서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판매자는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소비자는 차별화한 혜택으로 금액·시간·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상공인 구독경제와 상품 발굴 및 판촉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공동 정책 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판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꾸러미와 특산품을 활용해 구독상품 50개를 개발·판매하고,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구독경제 카테고리

를 개설해 물류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도장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택배비 무료 혜택과 3개월 구독 시 기본 20% 할인, 구독상품 추가 시 5%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구매자에게 1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추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기적 판로 확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고정 수익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독경제 사업의 핵심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도인 전남도가 우리 농산물 구독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구독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중소조선기업 지원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 개소

지역 중소 조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남유틸리티자원공유센터(이하 센터)가 26일 개소한다. 센터 내에 첨단 생산 장비를 구축해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전남도는 25일 목포 대양산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전남도, 목포시, 중소조선 기업대표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조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서도 내 중소조선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유

틸리티 자원공유 사업'을 유지했다. 센터는 도내 중소조선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생산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기술 컨설팅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중소조선 선박 건조와 관련된 ▲정밀설계 소프트웨어(SW) ▲3차원 로봇형상 가공기 ▲레이저 절단기 등 최첨단 생산설비를 구축했다. 지역 중소조선 기업들이 첨단 생산 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시범적으로 장비 활용을 시작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장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